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3 ~ 4/29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인생수업 | 법륜 | 휴 | 6 |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 지안 | 불광출판사 |
| 2 | 삶은 환타지다 | 월호 | 민족사 | 7 | 홀모리대 수행자 스승 반석 스승 이애기 | 유철주 | 민족사 |
| 3 | 뛰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용 | 웅화 | 8 | 깨달음 혁명 | 김종홍 | 침묵의향기 |
| 4 | 비울수록 가득하네 | 정목 | 쌤애파커스 | 9 | 불교의 모든 것 | 곽철환 | 행성비 |
| 5 |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 항적 | 조계출판사 | 10 |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세주요업품1) | 무비 | 담연북스 |



1200년 우리 차(東茶)의 진경, <동다송>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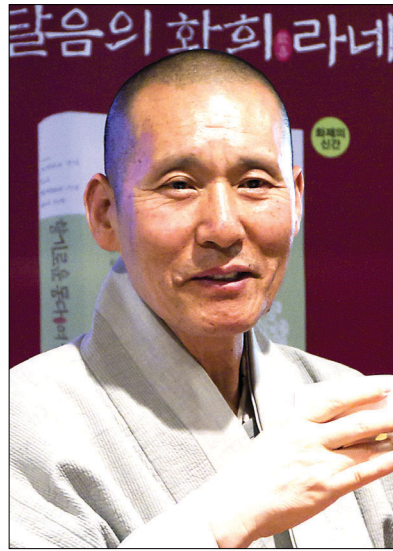
원학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8천원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몸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한 방법이고 깨달음의 환희와 다름이 없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사진)이 초의 선사의 선사 지은 초선의

다경 <동다송>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를 펴냈다.



초의의 다경 <동다송> 해설서

‘차’의 과정=수행의 과정

“한글세대와 함께 보고 싶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녹차인 동다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녹차와 달리 차별화된 향과 맛, 즉 독특한 향미가 담겨 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초의 선사는 우리나라의 동다를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행자가 수행의 한 방법으로 차를 마시고 차를 통해서 인격과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므로 동다를 통해 인간성의 본질인 청정한 품성을 찾는 데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

따라서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다선 일미(茶禪一味)를 언급하며 수행과 다도가 둘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의선사가 ‘동쪽나라(조선)의 차를 칭송하는 노래’, 즉 <동다송>을 지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차문화는 이제 현대인의 생활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지인들과 정담을 나눌 때나 식사를 마친 후에 차 한잔을 마시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마시는 차가 대부분 커피류라는 점이다. 한때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시나마 녹차의 대중화 바람이 일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시 커피의 인기에 밀려나고 말았다.”

저자 원학 스님은 1980년대, 초의선사가 살았던 전남 해남 대흥사의 부주지 소

임을 보면서 <동다송>을 접했으며, 언젠가 꼭 번역하여 한글세대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원학 스님은 “차가 단지 기호식품이나 건강음료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며 “한 잔의 차를 정성껏 달고 마시는 일에 또 하나의 진리, 또 하나의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동다송>에서 초의 선사는 동다의 품격을 노래하면서 여러 곳에서 차생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찾았을 따 두고 우리고 마시는 전 과정을 수행자의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초의 선사는 녹차(동다)를 만들어 마시는 과정을 인간이 저마다 추구하는 품성의 개발과 덕성을 닦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겼다. 흔히 차물은 청정한 수행자의 몸에 비유되고, 차의 향기, 즉 차향은 수행자의 파스한 자비함에 비유된다. 그리고 차맛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정함에 비유되기도 한다. 불가에서는 청정한 수행을 통해 평범한 인간의 심성이 순수하고 향기롭게 변화한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도를 통해 스스로의 심성을 맑고 깊게, 나아가 향기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초의 선사는 차와 선이 하나라는 다선일미의 경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의 선사는 차를 통해 대자연의 생명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삶이 진정한 다도라 말하고 있다. 내면이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나 차맛과 차향, 그리고 차맛이라는 청정한 기운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의선사의 <동다송>은 차를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하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여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많은 시어로 발현된 것이 <동다송>이다.

“하늘이 점지한 아름다운 차나무여!”

초의 선사의 <동다송>은 첫 장에서 차나무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며 우주의 창조주인 청정법신 비로자불께서 점지하시어 풀나무의 덕성에 깎여준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차나무를 찬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동다송>에는 초의 선사가 이룩한 1200년 우리 차의 진경이 들어 있으며, 불교 수행자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본 다경 초의 선사의 학문적 깊이와 차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상학이 ‘유식’에 주목하다

유식사상과 현상학

하루히데 시바 지음 | 박인성 옮김
도서출판 B | 3만원



유식학, 현상학, 인지과학, 정신병리학 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아우르려는 학술총서의 두 번째 책으로, 유식사상과 현상학을 비교사상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그것들의 핵심을 이루는 철학적 통찰을 추출함으로써, 양자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현상학적 사유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유식 사상의 철학적 의의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식사상의 여러 논쟁들의 의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분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중의 내적 필연성에 기초하는 비교사상적 작업이다.

독일의 현상학과 철학자 후설은 자신의 현상학이 철저한 초월론적 철학이라고 자인하면서, 객관주의적 전제에 아무런 자각 없이 의존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과학적 이성성에 대해 근원적인 비판을 시도했다. 한편, 유식사상은 우리의 언설에 의해 세

워진 세계를 가설된 세계, 곧 ‘변계소집성’이라 해서 이를 적결하고, 그 미방이 의지해 온 곳을 의지적인 ‘식전변(識轉變)’의 ‘사(事)’라 하며 이를 탐색했다. 유식학이 놓여 있었던 기본적 맥락은, 기본적으로 중관학파의 ‘공(空)’을 계승하고, 그러면서 아비달마의 치밀한 경험분석을 그 실체론적 전제를 비판하면서 수용하고, 거기에 그 경험의 근거를 돌파하는 ‘전(轉依)’를 통해 ‘공’의 확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유식학과 현상학은 시대로 보나 문제로 보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않은 채 대상 인식을 소박하게 수행하는 우리의 지(知)의 구조에 투철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 쪽은 가설(假說)의 소의(所依)인식(識)의 인연생기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평행관계라고 할 만한 공통성이 인정된다. 저자는 이 평행관계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항상 언제나 기능하고 있는 심층차원의 구조를 해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보편적 과제를 향해서 양자가 얼마나 철저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두 가지 집필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후설이 직면했던 초월론적 반성의 한계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건의 사상(事象) 구조를 유식사상의 아뢰야식 연기론과 3성설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저자가 후설의 초월론적 입장과 유식론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양자 간에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성을 추구하면서도 대상성의 논리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반성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비대상적인 차원에 이르는 사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식론이 문제로 삼았던 사상(事象)을 발굴하는 일은 현대의 ‘사유의 사태’로 보아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식사상의 연구 분야에서, 전통적인 법상교학의 이름으로 전승되어 온 호법과 현장의 사상과, 새롭게 발견된 범문원전에 대한 실증적 문헌연구에 기초하는 견해 사이에 다양한 해석의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중에는 ‘식전변(識轉變)’이나 ‘3성성’의 해석 등, 각각의 입장이 갖는 사상의 철학적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많은 논점들이 있다. 물론 필자로서는 이 논점들에 관해 문헌학적 고증을 행할 수는 없지만,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 논점들이 갖는 사상적 의의에 대해서 설사 불충분하더라도 철학적으로 검토를 시행하는 일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이 책의 두 번째 동기가 있다고 말한다. **박재원 기자**

종이접기 하며 ‘불교’ 배운다

불교종이접기

닉 로빈슨 지음 | 김지연 옮김 | 담연북스
1만3천8백원



책은 불교를 소재로 한 국내 첫 번째 종이접기 책으로, 다양한 불교 상징물을 손쉽게 따라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종이접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교에 대한 조인도 수록했으며, 각 작품마다 불교 관련 이야기들도 소개한다.

종이접기와 불교의 인연에 대해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사랑받아

오며 친숙한 공예 활동으로 자리 잡은 종이접기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불교와 마주

치게 된다는 사실이 자못 새롭다. 현대적인 종이접기는 일본의 전통 공예인 ‘오리가미(折り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종이접기가 발전한 데에는 불교의 힘이 컸다. 6세기 경 일본에 처음 종이틀 들어온 것도 스님들이었다.

책에는 15가지 종이접기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법륜(法輪)’과 ‘불탑(佛塔)’ 등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상징물들이다. 불교 설화 속 동물을 소재로 한 ‘어리석은 원숭이’나 ‘지혜로운 개구리’,



앉아계신 부처님

‘고결한 코끼리’ 등은 저마다의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한 장의 종이에 세상의 만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은 다양하다. 책에서는 다른 종이접기 교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종이로 접은 불교 상징물들이 선사하는 신성함과 평화는 종이접기를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서 마음 수행의 경지에까지 올려놓는다. 책의 작품들을 접어 나가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작품들이 불교의 이야기 또는 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 교육이나 신행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책에 소개된 15가지 작품들은 종이접기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가꾸는 데에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이다. **박재원 기자**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깨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계·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록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찰분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록 노거사의 역작(力作).

수처작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결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高僧 法風)을 대표하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여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현재 총 6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 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 증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도서출판 바로보인